

우리가 꿈꾸는 교회 2-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기

사도행전 2: 42-47

행 2:42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행 2:43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행 2:44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행 2:45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

행 2:46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행 2: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명을 확인하고 사역의 방향을 찾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가야하는 분명한 방향을 알고 있는가?” 그러한 이유로 3년 주기로 말씀을 통해 만나교회의 목회철학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사역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목회철학은 우리가 가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2천년의 교회 역사가운데서 교회의 사명은 변하지 않지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사역은 끊임없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인류가 그렇게 쉽게 경험해보지 못한 ‘팬데믹’이라는 ‘공백’의 시간을 경험했고, 그 시간들을 통해 ‘교회의 위기’를 심각하게 직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앨빈 토플러가 이야기한 대로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도전 앞에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 지, 어떤 사역의 방향을 가져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교회의 위기가 있을 때 마다 그 길을 [초대교회]에서 물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우리는 그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리즈 설교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강해식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중요한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의 목회철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42-47절의 말씀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 본문을 주 텍스트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물음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그 때 그 교회의 모습이 있는가?”

그리고 그 때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 상점에 들어서다가 문에 붙어 있는 표시를 보았다. 위험! 개조심!
상점 안에는 전혀 무서워 보이지 않는 늙은 사냥개 개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 “조심해야 하는 개가 저건가요?”
라고 물었다.
“물론입니다.” 상점 주인이 대답했다.
“글쎄요, 내가 보기엔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요. 저 경고문은 왜 붙었나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상점 주인은 대답했다. “저 경고문을 붙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꾸 개에 걸려 넘어지거든요.”

레너드 스윗 교수가 쓴[미래 크리스천]이라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스윗 교수는 미래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미래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교회는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시작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는 2023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시작한 시대가 열렸지만,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좌절을 심어주기도 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약 14주간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교회의 미래와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미래의 이야기가 되어야합니다.
제가 믿기는 교회의 부흥은 우리 민족의 미래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어야 함을 믿기에, 우리 만나교회의 소망은 바로 이 땅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꿈꾸는 교회”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만나교회는 팬데믹의 어려움 가운데서 많은 혜택을 보았습니다. 소위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브랜드 네임을 얻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비전 2020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진단했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하여 예측하고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M-Vision’을 통해 교회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하나요?”라는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가올 세상을 향해 준비된 교회가 되기 위해 미디어 사역을 준비했고, 미디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리는 토요일예배를 신설해 흠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했던 때, 그렇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만나교회 교회론을 통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특정한 건물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팬데믹 기간에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가 교회요 예배가 된다는 것을 경험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선교적인 교회를 꿈꾸며 모든 예배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일을 시작했기에, 갑자기 다가온 일들이 그렇게 생소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죠. 팬데믹 때문에 예배를 실시간으로 중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에 오지 못하는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다가가기위해 시도한 실시간 예배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이 어디를 가르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월간목회 2022년 7월호에 실린 사북감리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사북은 정선과 가까운 곳이고, 강원랜드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중독에 빠져 노숙자가 되어 있는 곳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고민입니다.

번듯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도박으로 모든 것을 잃고 막장 인생을 살아갑니다. 교회가 이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 달 내내 배달, 설거지 막노동 등을 하며 돈을 벌도록 도와주지만, 그 돈을 가지고 한 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보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계속 도와야 하는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일을 계속해야 하는가?

그 때 목사님에게 찾아온 답입니다. “계속해야지, 우리 주님이 그러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셨으니. . .”

우리가 왜 “꿈꾸는 교회,” 우리 교회의 미래를 말해야 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백화점의 신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간다면 어떤 시기를 정해야 할까요?

수영복은 봄에, 겨울 코트는 초가을에 분위기와 유행을 선점합니다.

오늘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일상사에 얽매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내일을 목표로 삼을 때에야 고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미래를 준비해야합니다.

과거의 환상도, 현재의 분주함도 꿈꾸는 교회의 미래를 가로 막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할까요?

꿈꾸는 교회. . .

꿈이라는 말이 가지는 뉘앙스가 미래적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지는 꿈은 늘 과거 지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리는 꿈이 있다면, 2천 년 전 교회가 처음시작 할 때 보여주었던 ‘초대교회’에 대한 향수 때문은 아닐까요? 사실 우리들이 접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라야,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이 전부입니다. 실상 수없이 쏟아지는 교회에 대한 책들, 연구서들에 비하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한 것일 텐데 말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초대교회를 이야기할까요?

그들은 기껏해야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이며,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므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 부흥의 전략을 생각하는데, 초대교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숫자를 더하여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란 부흥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질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꿈꾸는 교회’에 대한 날개를 달아보려고 합니다.

꿈은 제한도 없고 시공을 초월하여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에 꿈을 꾸어 보려고 합니다.

오래전입니다. 제가 협성대학원에서 선교학 강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올 때면 늘 기대를 갖고 듣던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다.

이종환 최유라씨가 진행하는 “지금은 라디오 시대”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방송을 들을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돈이 없어 죽어 가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왜 그렇게 여린 마음을 주셨는지 방송을 들을 때 마다, 내 가슴뿐만 아니라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때로는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다, 다시 핸들을 잡아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날도 역시 돈이 없어 수술을 못하는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리 돈이 없는 사람이 유독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아이의 엄마도 병이 있어 힘들고 게다가 아버지까지 직장을 잃었는지. . .

그때 문득 내 머리 속에서 상상이 날개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주 헌금을 온전히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쓸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한 주의 헌금이 또한 온전히 영혼을 살리는 선교헌금에 쓰여 질 수 있다면 하는 생각과 함께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인해 우리 교회에서는 ‘한셈치고’헌금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가까이 참 많은 일들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지난 비전 2020 project를 시작하면서, 2009년 까지는 이상적인 예산 실현의 해로 잡았고, 2023년 현재 만나교회는 헌금을 잘 사용하고 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꿈꾸며 계속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던 것”(행 2: 45)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남아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말입니다.

지금부터 꼭 20년 전인 2003년 제가 제안했던 일이 있습니다. 창립기념 프로젝트로, 제가 담임 사역을 시작한 첫 해 “사랑나눔 운동 본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월드 휴먼 브리지라는 단체를 통해 보통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겨울에 동해안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부둣가에서 회를 시켜 먹던 천막 안에 감자떡을 팔기 위해 들어온 어떤 할머니를 만났던 일이지요.

교역자들과 함께 회를 먹으러가서 감자떡을 팔아달라던 그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일이 지나 무작정 차를 타고 다시 동해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횃집에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감자떡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팔아드렸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분이 또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 한 봉지 주세요. 들어오는 분마다 다 팔아드리기로 걱정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할머니에게 먹던 회감도 권하고, 제가 먹던 게 다리도 잘라서 드렸습니다. 강원도 사투리로 다정하게 말입니다. “잡썬 보드래요. . .”

그리고 할머니에게 교회에 다니시냐고 물었습니다. 누군가 손님이 남겨 놓은 참 이슬을 맛있게 드시는 그분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했더니,

당신의 시동생도 술주정뱅이였는데, 예수를 믿더니 술을 딱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를 했지요. 예수를 믿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신분을 밝혔습니다.

“저 사실은 목사입니다.”

할머니 왈, “그래서 술을 안 먹었드래요. 어쩐지 점잖고 멋있드래요. . .”

그 때 제 가슴속에 찾아왔던 감정입니다. 예수를 믿는 다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이구나!

이 설교를 준비하는 기간에 우크라이나를 위한 헌금을 하고 동해안 산불 지역을 돕는 계획을 세우고. .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은 모습으로 말입니다.

매일 매일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인가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썩스럽고 미안한 생각이 들어왔는데, 자신 있게 헌금을 더 드리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는 목회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알랜 크라이더의 [초대교회에 길을 묻다] 라는 책에 보니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 영적 능력과 생명을 주는 일탈 - 초대교회가 외부인들에게 주는 매력**

초대교회는 10년마다 평균 40% 정도의 매우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 성장은 그리스도교가 불법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무시당하던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낯설지만 매우 흥미로워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왜 초대교회가 성장했나요?

그것은 그들이 질병과 운명, 그리고 귀신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주는 일탈’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 누가 자신의 아내가 길거리에 나가서 낯선 사람의 집을 돌아다니고, 형제들을 방문하기 위해 이집 저집 드나드는 것을 허락하겠는가?

저녁 모임에 참석하려고 외출하는 아내를 그저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남편이 얼마나 되겠는가?

부활절이 다가오면 진행되는 엄숙한 의식을 위해 밤새도록 나가 있는 아내를 보고 어찌 마음이 쓰이지 않겠는가?

누가 그토록 나쁜 소문이 무성한 주의 만찬 자리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자기 아내가 가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누가 자신의 아내가 순교자가 차고 있슨 죄사슬에 입맞춤하기 위해 감옥을 방문하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입맞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는 이야기지만,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들에게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놔두겠는가?

누가 자신의 아내가 다른 그리스도인의 발을 씻기도록 두겠는가?

그들에게 음식과 마실 것을 내주는 꼴은 또 어떻게 지켜볼 수 있겠는가?

어떤 형제가 여행 중에 그리스도인의 집에 신세를 질 때 집주인이 제공하는 환대는 또 어떠한가?

하나님이 주신 겸손으로 인해 아직 신앙심도 없는 여인이 이런 천상의 미덕을 실천하는 것을 보면 이방인 남편의 마음속에서 경외심이 생길 것이다. 이런 결과로, 그 남편은 아내의 신앙에 대한 비난이 줄어들고, 협박과 의심도 적어질 것이다. 기적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진리를 눈으로 보게 되고, 아내가 좋은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경외심 가운데 그 자신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것이다. (Tertullian, TI His Wife 4, 7)

언젠가 성경공부를 인도할 때의 일입니다. 교인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에이즈 환자들이나 동성연애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나요?”

물론 반사적으로 내 입을 통해 나오려는 생각은 “안 되지요, 그건 죄니까요”라는

말이었습시다. 그런데 그 때 또 내 머리를 스치는 생각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그 때 내 속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답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병이 혹은 현재의 모습이 죄 때문에 얻은 것이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삶을 살아가고 있든, 그것은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보호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복음이 죄에 대한 명확한 정죄(定罪)를 할지라도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은 늘 두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과, 죄로 인해 심판받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죄의 심각성 뿐 아니라, 죄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정죄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교회는 죄 뿐만 아니라 죄인들에 대하여도 선을 긋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이 당시의 천형으로 여겨지던, 혹은 죄 때문에 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여겨지던 문둥병자들을 만나시고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만나기 꺼려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에게 경원시 되는 사람들을 찾아가 구원해 주셨던 것과는 달리, 우리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를 노릇입니다. 마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태도가 못마땅하여 불평을 터뜨렸던 것처럼, 우리교회가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풀러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는 ‘앨런 락스버그’라는 교수는 최근 서양의 교회가 침체된 이유로 다음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보와 기술이 있으면 무엇이든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능적 합리주의,

둘째는 교회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

셋째는 선교도 전도도 구제도 오직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교회 중심적 사고,

넷째는 교회를 평신도와 목회자로 나누고 평신도는 관객으로, 목회자는 배우로 만드는 목회자 중심적인 사역입니다.

그는 이 네 가지 경향성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닌 성장과 번영을 추구하는 미신적인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현대 교회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담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2000년 여름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세계복음주의 회의에 참석했을 때, 저는 헤이그에 있는 이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발행하던 신문들은 극동에서 온 사람들이 '만국 평화 회담'에 들어가려다 저지를 당한 일을 큰 뉴스거리로, 커다란 활자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신문에는 그 당시의 상황을 풍자하는 만화가 실렸는데, 이준 열사의 장례식이 열리던 날을 희화(戲畵)하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에는 “만국 평화 회담장”이라고 쓴 푯말이 붙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 그리고 머나먼 극동(極東)에서 평화를 호소하려고 온 힘 없고 나약한 자의 출입을 허락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평화회담이냐는 조롱조의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꿈꾸는 교회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뉴질랜드의 복음주의자 브라이언 메드웨이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교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대상은 사랑하지 않고 있다.”

메드웨이의 주장은 이런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교회로 부르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당신을 선교지로 부르셨다.”

크리스천 혹은 교회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죄는 ”commission" (죄를 범함)도 아니요, ”ommission" (태만)도 아닙니다. ”no mission"입니다. 즉 선교가 없다면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예수님과 동일한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역지로 선택하시고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을 동일하게 수행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 .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민족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을 위해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셔서 피를 흘리도록,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의식의 전환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위해 존재했던 교회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